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설 명절 맞이 이웃사랑 실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가 지난 20일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고창군 관내 '나사로의 집' 등을 찾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위문했다.

고창지사는 '나사로의 집' 등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 지역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사로의 집 임희택 목사는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시설 장애우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임 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 힘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소외·취약계층을 찾아 이웃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창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강성일 기자